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제주도 전통놀이 분석

지도교수 이 경 화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이 월 심

제주도 전통놀이 분석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이 월 심

이월심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황 해 익 인
심사위원 권 순 용 인
심사위원 이 경 화 인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도 전통놀이 분석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이 월 심
지도 교수 이 경 화

본 연구는 제주도 전통문화라는 맥락에서 제주도의 전통놀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주제, 시기, 공간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제주도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주도 전통놀이의 주제적(연령·성별·집단크기) 특성은 어떠한가?
- 둘째, 제주도 전통놀이의 시간적(계절·연중) 특성은 어떠한가?
- 셋째, 제주도 전통놀이의 공간적(놀이환경·놀이감)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57종의 제주도 전통놀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양적 분석과 함께 내용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놀이를 주제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유아기(5~7세)에는 빈곤한 생활로 인해 놀이가 많지 않았으며, 아동기(8~13세) 놀이는 어른들의 놀이를 모방하거나 노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즐기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전통놀이는 남아놀이가 여아놀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제주도의 전통놀이는 남녀 구분 없이 행해진 놀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집단크기에 있어서도 대집단놀이보다 소집단놀이가 보다 우세하였다. 이는 제주도 전통놀이문화의 주제 평등성으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둘째, 제주도 전통놀이를 시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계절별로는 농한기인 겨울에 주로 이루어지는 놀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반

도 타 지역의 전통놀이와 달리 연중 행해진 놀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가 토양의 특성상 논농사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또한 연중 온난한 기후환경을 지니고 있어 나타난 것으로, 노동의 성격을 띤 놀이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제주도 전통놀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한반도 중심의 한국의 전통놀이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외 자연환경이 주요 놀이 환경이었으며, 놀잇감에 있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이를 가공한 놀잇감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나 자연친화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 한편, 한라산을 중심으로 생식하는 꿩이나 노루 등을 제재로 삼은 놀이나 숨비질놀이와 같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놀이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차례 >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전통놀이의 개념과 가치	5
2. 문화와 전통놀이와의 관계	7
3. 제주도 전통놀이의 문화적 기반	11
4. 제주도 전통놀이 선행연구 고찰	22
III. 연구방법	25
1. 분석 대상	25
2. 분석방법	26
IV. 제주 전통놀이의 특성	28
1. 주체적 특성	28
2. 시간적 특성	33
3. 공간적 특성	40
V. 요약 및 결론	47
1. 요약	47
2. 결론	49
참고문헌	52
부록	56
Abstract	62

<표차례>

<표Ⅲ-1> 자료분석 틀	26
<표Ⅳ-1> 제주도 전통놀이의 주체적 특성	31
<표Ⅳ-2> 시간별 제주도 전통놀이	38
<표Ⅳ-3> 공간별 놀이분석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이란 한 겨레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민족의 얼과 예지를 모아 창조해 낸 생활양식과 사상의 총체적 유산으로서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들의 가치와 믿음, 언어, 기술, 구조, 관습을 나타낸 문화적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가 역사라는 시간과 풍토라는 공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주체에 의해 생성 및 전승되어지는 것을 전통, 혹은 전통문화라 부른다.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전통놀이는 고대로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지면서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을 지니는 놀이를 말한다(이은화, 1989). 이러한 각 지방마다의 특색을 띠고 있는 전승놀이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 개작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민속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전통놀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삶에 대한 철학과 지방고유의 특색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의 민족문화가 말살 당했던 점들을 들 수 있으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른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서구화된 생활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1993).

특히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한국 고유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외래의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 이에 흡수 또는 동화되는 경향이 오늘날 전통놀이를 도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 자체가 변화되면서 더 이상 전통놀이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점이 그 원인중의 하나이다. 아파트의 차량이 폭증하면서 놀이공간이 줄어들어 과거의 골목이나 빈터에서 여럿이 어울려 즐겼던 놀이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TV, 컴퓨터, 오락기기 등 전자 매체의 발달로 옷에 땀이 흠뻑 젖도록 뛰어 놀았던 놀이들이 TV나 비디오 시청, 컴퓨터 게임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통놀이는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이 사회화이고 그것이 곧 교육이라면 교육자로서로서의 문화는 전통에 그 뿌리가 있다. 모든 아동들이 외래문화와 최신기기의 전자매체가 아닌 우리 본연의 전통놀이에 접해 봄으로써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 지식, 개념, 가치, 행동 양식을 터득할 때 비로소 민족 문화에 대한 정체감이 형성 될 것이다.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갈 후세인 아동들에게 삶의 양식과 조화를 이룬 형태의 전통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한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와 태도를 오늘날의 삶 속에서 이어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은화·홍용희·조경화·엄정애, 2001). 따라서 아동교육자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놀이 문화의 맥을 찾아 이어 줌으로써 아동들이 상실한 한겨레 고유의 민족 정서를 되찾게 해주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전통놀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연구 방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전통놀이의 종류와 현장 적용 방안 및 그 발달과 교육적 가치를 규명한 연구들이며(교육부, 1993; 김선옥, 1997; 김연옥, 1994; 유안진, 1981; 이은화, 1989), 또 다른 방향은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놀이 실태를 파악하거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김경희, 1986; 김정혜, 1993; 신동주, 1998; 양영미, 2002; 온영란, 1996; 이순자, 2001)로서 전통놀이에 관한 연구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전통놀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현장 교육 교사들이 전통놀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지역적 특색을 띠고 있는 전통놀이에 관한 분석연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재고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는 “한국의 전통놀이”라고 명명된 놀이의 범주에 관한 것으로, 대다수 전통놀이 관련 연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한반도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놀이들을 수집, 발굴하고 또 이들을 문화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전통놀이 연구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한반도와는 다른 지형학적, 인문·사회학적 환경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저항과 생존 투쟁이란 역사와 삼다(三多-風·石·女)로 대표되는 공간적 기반 위에서 전통문화를 형성, 전승해 왔다. 한 민족, 한 국가이면서도 한반도 본토와는 언어와 생활양식에 있어 차이가 많으며, 특수 문화권으로서의 독자적 민속이 전해오고 있음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다. 제주도가 ‘방언과 민요, 설화와 무가 등 구비문학의 보고’(고재환, 1986)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만큼 전통문화에 대해 여러 분야의 민속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 문화권 내에서 다수가 향유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인 놀이에 관해서는 그 사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놀이의 수집 및 발굴과 문화적 기반이라는 맥락 하에 전통놀이를 일차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문화는 인간과 그 삶의 터전인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믿음, 언어, 기술, 사회적 구조, 관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놀이문화는 역사라는 시간과 풍토라는 공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유아와 아동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것으로서 여기에는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지속성과 거주하는 지역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것이라는 공간적 공유성 그리고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서 놀이를 한 주체의 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의 고찰을 통해 제주도의 전통놀이를 수

집하고, 이를 문화적 맥락 즉 주체와 시간, 공간의 3차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집된 전통놀이를 연령, 성별, 집단크기의 주체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특정 계절과 연중 행해지는 놀이의 시간적 차원 그리고 놀이환경과 놀잇감 유무와 같은 공간적 차원에 따라 분석해 봄으로써, 제주도의 전통놀이에 대해 그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전통놀이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전통놀이의 주체적(연령 · 성별 · 집단크기) 특성은 어떠한가?
- 2) 제주도 전통놀이의 시간적(계절 · 연중) 특성은 어떠한가?
- 3) 제주도 전통놀이의 공간적(놀이환경 · 놀잇감) 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전통놀이의 개념과 가치

전통놀이의 의미는 전통의 의미와 놀이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전통이란 지난 세대에 이미 이루어져 그 후로 계통을 이루어 전하여 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말한다. 즉 내림이라든가 계통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전통을 통하여 한 시대에 살던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나누어 갖고 있었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다. 놀이란 무엇보다도 내적 동기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놀이를 하는 사람은 외적 현상이나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되는 성취나 업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놀이에는 내적 만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이대균, 1995).

전통놀이란 옛날부터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민속놀이라고도 하며 향토색을 지니고 전통적으로 해마다 행하여져 오는 놀이를 말한다(최상수, 1985). 전통놀이는 다른 놀이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놀이에서 얻는 기쁨이야말로 아동들이 놀이를 하는 궁극적 이유이며, 놀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전통놀이는 아동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한다(유안진, 1981, 1990; 이은화, 1989). 전통놀이는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며 신체적 건강과 운동능력을 증진시킨다. 놀이로 인한 즐거움 자체가 아동들에게 정서적 만족을 주고,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게 하며, 또한 근육을 강화하고 소근육 운동능력, 균형 감각, 그리고 리듬감의 발달에 기여한다. 또한 전통놀이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발달 및 언어 발달을

조장한다. 한 자녀만 둔 가정이 증가하고, 인간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협동심과 공동체감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놀이는 가치 있는 경험이다(심우성, 1998). 특히 언어에는 집단 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놀이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문화 전달의 주요 도구가 된다. 이외에도 전통놀이는 사고와 개념 발달을 조장하며 인지적인 자율성 및 창의적 능력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놀이를 통해 물리적·수학적 지식과 개념을 습득하며, 일상적인 환경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둘째, 전통놀이는 자연 친화적이고 여유 있는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전통놀이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가 많고(심우성, 1996), 계절이나 절기와 관련되어 자연의 질서에 삶의 흐름을 맞추는 우리 선조의 생활방식이 깃들여 있다(신동주, 1998). 따라서 자연과 계절 및 절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전통놀이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와 여유 있는 심성을 기르기 위한 주요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셋째, 민족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세계화가 21세기의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퓨전(fusion) 문화가 새로운 문화의 흐름으로 부상되고 있는 최근, 아동들의 놀이는 놀잇감 산업의 발달과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의 매체의 보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은화·정진·박현주·김현정,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정체성의 확립은 더욱 필요하다. 제6차 교육부 유치원 교육과정(2000)에서도 세계화에 대비한 전통 문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듯이, 한 민족이 공유한 전통 문화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요한 바탕이 되고 있으며, 문화의 한 요소인 전통놀이는 아동의 정체성 확립에 핵심적 기제가 될 수 있다. 놀이에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Huizinga, 1993)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관습, 믿음, 가치관, 정서 등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실로 “놀이는 사회의 현실상황을 유지시키는 것 이상의 어떤 대안적 역할을 하게”(이은화, 1989) 되는 것이다. 전통 놀이는 과거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내면화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게 도와주므로, 궁극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민족적·문화적 정체감을 확립하게 하며 정체감의 확립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전통놀이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남·북한간에 사상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이질화가 심화되어 왔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통일을 대비한 교육은 우선 민족의 동질성을 깨닫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오랜 세월이 걸쳐 전승되면서 우리 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심성·언어·정서·지혜가 녹아 있는 전통놀이를 많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합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놀이는 그동안 누적된 생활양식 및 의식의 이질성을 좁혀줌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및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2. 문화와 전통놀이와의 관계

인간의 삶은 놀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인간이 태어난 집단의 문화는 놀이 행위를 통해 규정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태동을 일컬어 ‘아기가 논다’라고 표현한다.

조경만(1989)은 놀이란 주변 세계를 문화화 하는 기제인 것이며, 사람은 역으로 문화에 의해 ‘놀아진다’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당대에까지 형성되어온 문화가 제공하는 바에 따라 놀이를 하는 것이며, 그 놀이 속에서 또한 당대의 문화적 가치들과 규범을 입력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력되어진 문화의 가치와 규범은 사람의 활동과 사고의 방향에 영향을 주며, 이 사고의 주체인 사람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가도록 하는 동인이 된다. 따라서 전통놀이를 ‘세계·인간·문화를 연결짓는 고리’라고 하는 정의는 매우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아이들 놀이는 성인에게서 일상적인 노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과로,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놀이는 생의 기능으로서의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며, 놀이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표현적인 가치가 있으며, 사회와 결합되는 등 문화적 기능의 이유로 인하여 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문화로서의 전통놀이는 시간, 공간, 주체적 기반과 그것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인 사회적 상황을 통해 행위나 물질, 또는 언어로 전승되는 것으로, 사회 맥락적인 요인들과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놀이와 문화간의 상호관련성을 전제한다면, 놀이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놀이를 문화와의 관련성에 입각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은 Huizinga(1993)의 주장으로부터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조성채, 1995, 재인용). 놀이가 문화의 일부분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형태를 취하고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고 봄으로써 놀이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김윤수 역, 1993; 엄옥자·김미숙, 1997; 조성채, 1995).

이러한 Huizinga의 주장과 관련하여 Schwartzman(1978)은 놀이연구의 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베트남 난민 아동들의 놀이를 미국과 비교한 Robinson(1978)의 연구로부터 미국내 아프리카계 아동들의 놀이를 다룬 연구들(McLoyd, 1980; Montare & Boone, 1980; Lefever, 1981), 세네갈, 쿠웨이트, 푸에토리코, 버뮤다 등에서 나타나는 아동 놀이를 미국의 놀이와 상호 비교한 연구들(Al-Shatti & Johnson, 1984; Bloch, 1984; Hrnair et al, 1983; Yawkey & Alvarez-Dominiqu, 1985), 그리고 이 외에도 터키(Bower et al, 1982), 이스라엘(Udin & Shmukler, 1981) 등의 아동놀이에 관해 비교 문화적 관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놀이와 문화는 삶의 역사를 통해 전승되면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며 통합된 하나의 체제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경험 조직의 표준(김영찬, 1970)을

뜻한다. 즉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언어·풍습·도덕·종교·학문·예술 및 각종제도 등’을 말한다. 이로써 문화는 전통에 근간을 두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은화, 1989).

예컨대, 선달그믐이나 정초에 웃어른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우리의 오랜 관습인 ‘설 문화’는 공동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의 효도와 우애와 화목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적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전통문화를 통해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화에 대한 예측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놀이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 및 발전시켜왔다. 전통놀이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놀이 형식에 담아 후세에 전하는 일종의 “문화프로그램” (교육부, 1993)으로써 교육활동의 역할을 한다. 전통놀이를 통해 후손들은 민족 고유의 정서를 경험하고, 전통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고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 및 생활에 이를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놀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전통놀이의 유래나 생성동기를 살펴보면 단지 재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신앙과 가치관, 효율적이고도 새로운 생산을 위한 준비와 기원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1993, 2000; 김광언, 1989; 심우성, 1996; 이은화, 1989; 지춘상, 1980).

첫째, 토착신앙인 무속을 바탕으로 한 제천의식이나 외래종교인 불교나 유교의 제사의식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놀이화된 것으로서 윷놀이, 제기차기, 산가지놀이, 관등놀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윷놀이인 경우 한해의 농사를 점치는 농점(農占), 가정이나 개인의 길흉을 점치는 신수점(身數占)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설날에 일반인들이 즐기는 놀이로 정착되었다.

둘째, 자연적 조건, 이를테면 지리·기후·계절 등에 따른 세시풍속이

놀이로 발전한 것으로서 풍악(농악), 달맞이, 다리 밟기, 지신밟기 등이 있다. 그 예로서 모를 심고 김을 매며 벼를 베는 농사의 일장단과 풍악의 장단은 일치한다.

셋째, 전쟁에 대비한 훈련술이나 전략으로 사용된 것이 후에 놀이 형식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연놀이, 강강술래, 승경도놀이 등이 그 예가 된다. 강강술래는 임진왜란시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게 아군의 강함과 조직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병술(疑兵術)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넷째, 공동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로 놀이의 형식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서 비석치기, 남승도 놀이, 원놀이 등이 있다. 그 예로서 비석치기는 봉건적 관료 사회의 유물인 비석처럼 생긴 네모난 돌을 차며 노는 것이다. 비석들은 대부분 탐관오리들이 그들의 조상이나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돈으로 세운 것이다. 민중들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비석 치는 놀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해소시켰던 것이다.

전통놀이는 과거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고 도태되거나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문치주의 국가로서 학문을 숭상하고 놀이를 경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풍토에다 근대화,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 서구화,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자놀이 확산 등이 전통놀이의 단절이라는 위기로 몰고 가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여러 요인들 중 놀이를 중요시하지 않는 우리나라 전통 사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반상(班常)·문무(文武)·남녀(男女)·장유(長幼)간 놀이에 대한 구별이 있었다. 사대부집 남자 아이들에게는 놀이를 멀리 하고 경전을 중심으로 학문의 기초를 닦고 바른 태도로 학문에 정진하기를 요구하였다.

조선시대 4대 실학자중 한 사람인 이덕무는 아동의 생활지침으로 “돈이 있으면 반드시 종이를 사고, 종이를 사면 반드시 책을 만들고, 책을 만들면 반드시 격언을 써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깨웠다. 반면

여자아이들에게는 수예나 풀각시 놀이 등을 통해 가사 및 육아를 위한 기본 능력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전통놀이는 반상/문무, 남녀유별, 장유유서로 구별되는 당대 사회의 신분구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교육부, 1993). 이러한 놀이의 계층이나 성별에 따른 이분화 현상은 서양 놀이의 구조나 역할과도 비슷하다. 서구의 놀이구조는 17세기 후반부터 계층과 나이에 구분을 둠에 따라 성인과 귀족층의 놀이는 아동과 일반 서민의 놀이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유아나 아동놀이가 성인 놀이에서 분리된 이후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사실상 짧기 때문에 전통놀이는 대부분 성인들을 위한 것이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는 그리 많지 않다. 어린이는 그저 성인들이 놀이를 하면 구경하거나 거들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성인들이 하는 놀이 중 사행성을 조장하는 놀음놀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그대로 따라 배워서 안 되는 문제점도 있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적 환경 변화에 의해 놀이 문화도 변화된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따라서 전통놀이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으며 즐기차게 전승되는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거나, 민속 문화로서의 고유성을 지니지 못할 때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임재해, 1986).

전통놀이는 다음 세대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추구해온 이상적인 인간상과 사회 및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현재의 생활 속에서 전통 문화를 찾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다.

3. 제주도 전통놀이의 문화적 기반

전통놀이와 문화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유안진(1981)은 전통놀이를 ‘한국 고유의 아동놀이로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겨있

는 놀이'라고 하였고, 김인희(1981)는 문화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태어나서 생활하는 가운데 학습한 결과이며,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대로 행해지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놀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유아나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거나 부분적 또는 소극적으로 행하여졌던 놀이를 분석하며 제주도라는 특정지역 속에서 전승되는 놀이를 통칭하여 제주도 전통놀이라고 정의함을 분석에 앞서 우선 밝혀둔다.

한편 제주도는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인해 놀이문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렇다 할 놀이문화가 없다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송성대, 2001), 이는 놀이를 여가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놀이 중 오락이나 여가가 일차적 목적인 놀이 중에서 뚜렷놀이, 숨비질놀이, 빅들림, 뭍흥내놀이, 뭍싸움고장놀이, 잉어놀이, 갱이잡기, 꿩뚫새기봉그기, 폭충싸움, 펜싸움 등의 일부 놀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반도 본토나 일본 등의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고 추정되는 점도 이러한 지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놀이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자연적이고 정신적인 풍토와 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 지역 서민들이 생산해 낸 역사의 소산으로(임재해, 1986), 단순히 오락이나 여가 차원에서가 아닌 역사성과 전통성, 민속 문화로서의 고유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놀이는 전국적으로나 동양권 혹은 세계적으로 대부분 유사한 놀이들이 많다. 이는 자연적인 환경이나 놀이의 생산에 있어서 지리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아이들의 신체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함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제주도의 전통놀이를 문화적 기반 위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편이 협동하여 자기들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상대를 방어하는 협동심을 기르고, 영역(땅)을 탈취하고 또는 소유하는 소유의식이 강한

놀이들이 많다. 즉 땅 따먹기나 모형놀이는 서로 힘을 합쳐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여 빼앗음으로써 점수를 많이 얻고, 혹은 많이 따서 소유하는 그러한 놀이들이다. 그리고 계열의식이 강한 놀이들이 많은데 원님이나 도둑 등 수직적인 계층을 설정하여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는 집단놀이들이 대부분인데, 사회적인 관심의 확대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고정되고 지위를 부여받아서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사회를 익히는데 적절한 놀이이다. 이는 도서성에 의한 것으로 땅의 비좁음, 생활의 껍박함에서 온 소유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상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놀이들이 많다. 즉 놀이를 해서 점수를 얻고 이긴다거나, 술래잡기 또는 깡통 차기에서는 한 사람의 놀이자가 술래 모르게 나타나 아웃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웅 기대 심리, 또한 동·식물을 채취하거나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유상 심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민속놀이가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팽이치기나 연날리기 등이 다소 행해지기는 하나 바람의 영향으로(특히 겨울) 제약이 있고, 널뛰기나 장기, 고누와 같은 놀이도 흔하지 않다. 이는 과거의 성인들이 제주도의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살아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민속놀이를 충분히 즐기지 못해서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놀이가 전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아동놀이는 규칙이 엄한 편이다.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켜야만 놀이가 행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놀이 진행이 어렵게 된다. 놀이 과정 중에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아웃이 되는 타당하고 공평한 질서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를 가지고 하는 말놀이 형태로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해졌던 귀잡기, 웃기기, 꼬집기 등은 어휘력 증가와 함께 가사 대치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음악성을 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김항원, 1998;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2000; 김혜숙, 1998; 송성대, 2001; 이창기, 1999; 제주도교육

청, 1996; 진성기, 1975; 현용준, 2002)을 기반으로 하여 제주도 전통문화 속에 제주도 전통놀이가 갖는 의미와 특성을 주제, 시기, 공간별로 분석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주체적 기반

먼저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 사람들은 노동으로서 현실 세계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각박한 풍토조건으로 인한 현실적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할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심리로서 무속적 민간 신앙에 의존하는 이중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주도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심방(巫)¹⁾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다신적인 무속신앙을 믿어왔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민간신앙의 바탕은 원시 고유신앙의 유산인 샤머니즘 계통의 것이고, 거기에 불교, 도교, 유교가 혼합된 것이다. 이 샤머니즘은 원시시대의 우랄알타이어족간에 발생한 원시 종교이면서 자연 종교로서 그들의 모든 사고 생활의 기둥이 되어왔다. 샤머니즘적 토속 신앙이 제주도민의 생활에 밀착되어 마을마다 신당을 마련하고 거기에 그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堂神)을 모시고 있다.

제주도 민간에서는 이러한 무속 신앙이 타 지역에 비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무속에 대한 신앙은 생활 전반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종천, 1982; 현용준, 2002).

이렇게 무속은 고유의 신앙 형태로 제주도민 전 생활 영역의 지주로 어업, 무혼(撫魂), 질병치료 등에 기능하면서 성행하였고, 문화에 영향을 미쳐 신화, 무가(巫歌), 무악(巫樂), 무무(巫舞), 무극(巫劇)등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놀이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 제주도민의 초월적 의식이 반영되어, 공동체가 함께 하는 무속 신앙적 놀이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놀이는 아동들이 직접 주체가 되었던 것은 아

1) 巫堂을 제주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방>이라 하는데 이는 巫堂에 대한 경칭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니지만 공통의 문화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아동들에게는 일종의 관찰 놀이의 성격을 지니며 어른들이 주체가 된 놀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 예로, 꽃반은 초하루부터 대보름날까지 보름동안 산, 숲, 내, 못, 언덕 그리고 돌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심방이 탈을 쓰고 신의 독(蠶)을 받들고 징과 북을 울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돈을 그 독에 바치는 것으로 일종의 당제로 풀이되고 있다. 또 달구 짓기는 터신(土神)을 속이기 위해 남자가 여자의 치마저고리를 입은 차림으로 소에 잠대를 매워 그 터를 갈아 제치고 씨를 뿌리고, 김매고, 곡식 베고, 거두어들이는 등의 시늉을 아홉번 되풀이해야 하는데 이것은 낡은 집터에 집을 짓는 데는 아홉 해가 지나야만 흉이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무속 신앙적 놀이의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모듬떡(떡占)의 경우에는 한 마을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떡을 찌서, 그 떡의 됃됨이를 보고 그 해의 신수를 알아보는 것으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며, 주로 여성들이 쌀을 모아 가루를 빻아 어느 한 집에 모여서 한 시루에 제각기 자기 몫의 떡가루 밑에 자기의 이름, 나이를 적은 종이를 깔고 시루떡을 찌게 되는데, 이 때 떡이 덜 찌진 사람은 그 해 운이 불길하다 하여 그 떡을 먹지 않고 세 갈래 길이나 다섯 갈래로 길이 트인 길바닥 복판에 가서 버리는 일종의 주술적 놀이의 성격을 지닌다.

이 외에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함으로써 속병을 낫게 한다는 백중물놀이나 방액을 위한 타발(연올리기) 등의 놀이는 제주도 전통사회의 현실극복의 초월 지향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들을 관찰하고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고난의 현실에 대한 대응 양식을 강화시켜 나갔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아동들이 주체가 된 놀이 형태로서 구성 인원의 조직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혼자서 가능한 단독놀이이다. 이는 개인놀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혼자 즐긴다는 점에서 다소 자족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반드

시 혼자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과 공동의 유대를 가지고 상호가 즐기는 가운데서도 단독으로 행해져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올리기, 도래기치기와 같은 놀이들은 혼자서만이 가능하고 또한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가지고 부르는 놀이 노래는 혼자만이 있기에 그들과의 대화가 노래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개인놀이는 놀이에 대한 특별한 규칙은 없고 단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놀이를 계속한다고 하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 놀이는 상대가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게 되면 겨루기 놀이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둘째, 두 명이 놀이하는 짝 놀이의 형태이다. 이는 곧 상대적인 놀이로서 1:1의 경쟁적인 놀이형태를 지니고 있고 짝을 지어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즐기는 것이며 놀이 도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즐긴다. 간단한 치기류의 놀이나 뛰기, 먹기등의 겨루기가 많고, 대부분의 놀이가 한 사람이 더 존재하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는 언어를 가지고 노는 말놀이가 속한다. 즉 말놀이는 대화나 문답을 요구하므로 상대가 필요해진다. 또한 여아들의 손뼉치기 놀이는 노래에 따라 유희를 하면서 진행하므로 이는 겨루기 형태를 벗어나서 짝을 이루고 행해진다. 단지 규칙에 어긋났을 경우에 한해서만 벌칙을 받게 되며, 유희를 즐기고 기량을 기르는 놀이이다.

셋째, 집단으로 행해지는 놀이이다. 이와 같은 집단놀이의 유형은 다음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인이 1조씩 즉, 각자가 여러 편을 구성해서 편이 되어 즐기는 각자놀이, 편을 둘로 가르되 한편이 2명 이상인 편 놀이, 또한 한 편으로 구성되지만 패를 지어 노는 패놀이 등이 있다. 그러나 술래놀이는 1명의 술래와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다는 특이성이 있다. 여러 인원이 줄을 지어서 행해지는 도둑놀이, 줄드래기놀이, 호박놀이 등의 행렬놀이 등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각자놀이는 홀수의 인원이 가능하나 편 놀이는 대부분 짝을 이루고 겨루기를 한다. 유형별로는 끈즈 나

뽕을땅, 뽕이치기, 공기놀이가 있는데, 각자가 점수를 환산하거나 그 양을 합하여서 승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놀이들은 개인놀이가 각자 놀이로 발전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제주도교육청, 1996).

편놀이는 짝놀이의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변환 형태로서, 구성원의 노력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상대편과 경쟁하여 이기게 되는 놀이로서 집단적인 편놀이 즉 패놀이처럼 협동성이나 단결성이 요구되지 않고 개별적인 역량이 집합 이상으로 발휘되는 협동적 역량이 문제가 된다. 패놀이는 여러 인원이 두 패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와 한 패로 이루어져서 술래 한 사람을 정하는 술래놀이 형태의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 전통놀이의 주체가 되었던 아이와 어른들의 놀이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 놀이로는 가매타기, 곤각시 만들기, 기러기놀이, 끈놀이, 숨비질놀이, 눈(雪)싸움, 눈(目)싸움, 도래기치기, 돈치기, 뚜렷놀이, 물훔내놀이, 죽마타기, 빠짱치기, 뽕을땅, 방칠락, 잉어놀이, 연올리기, 지게발걷기, 줄드래기놀이, 쪽기차기, 청애조심, 폭충싸움, 물싸움고장놀이, 편싸움, 까막잡기, 뽕이치기, 물탈락, 고냉이방치기, 행경놀이 등이 있었으며, 어른들의 놀이는 화반놀이, 사또놀이, 입춘굿놀이, 영감놀이, 조리희, 약마희, 정소암화전놀이, 소싸움붙이기, 달구짓기, 모듬떡집, 백중놀이, 활쏘기, 모래뜸질, 글청의 관동, 마상재 놀이 등이 있었다.

2) 시간적 기반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저항과 생존투쟁의 세월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 반 독립적인 형태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해 오던 고대 부족국가였던 탐라가 고려 태조 때부터 중앙정부의 체제 하에 들어가면서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조선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으로 인해 일개 군·현으로 전락되었으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수차에 걸친 변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어업기지로 전라남도예에 예속되어 일제의 경제수탈 정책에 희생되었으며, 해방 이

후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한 4·3이란 비극적 사태로 곤란을 겪었다.

근대 이전에는 관원들의 수탈이 심해서 행정 부재의 지역으로 꺾박을 받았으며, 근대 이후에도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의한 군사, 정치, 산업적 전략지로 변모하는 등 제주도의 역사는 지배층의 피압과 수탈, 이민족의 침탈로 인한 곤욕과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 속에 행해졌던 놀이의 한 형태로서 죽마타기 놀이가 있는데, 이 놀이는 동네 유아들이 막대기를 말로 생각해서 타고 달리며 노는 놀이의 한가지이다. 유아들이 막대기를 두 다리 사이에 지르고 한 손으로 그 막대기의 윗 부분을 잡고 달리는 놀이인데, 부락의 양지바른 골목이나 놀이터에서 일제히 나무 말(木馬)에 채찍질하여 달리는 모습은 어찌 보면 수많은 병마가 일제히 쳐들어오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놀이로 특히 가을에서 겨울까지의 사이에서 많이 행해졌다.

이러한 놀이의 특성은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겪었던 제주도 유아들의 생활 모습이 놀이 속에서도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단합을 요구하면서 주로 달 밝은 밤에 행해졌던 기러기놀이는 동네아이들이 모여 키대로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허리띠를 잡아 쥐어 늘어서면 한 아이가 귀신 차림으로 나타나서 맨 끝의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잡게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 놀이이다. 새끼기러기를 귀신에게 잡혀가지 못하게 잘 보호하면 함께 놀이한 모임에서 명예의 박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놀이들은 어린이들의 왕성한 활동기를 북돋아 주는 놀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를 특징짓는 문화 가운데 삼다(三多)²⁾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바람이 많다’는 요소가 있다. 바람이 많다는 뜻은 바람 부는 날이 많을 뿐만 아니라 풍세가 강함을 동시에 의미한다. 제주도가 이처럼 강풍·다풍지역이 되고 있는 것은 위치에서 오는 것과 도서라는 데에 기인한다. 여기서의 위치란 제주도가 강풍의 통로가 되는 유라시아 동단에 존

2) 삼다(三多)는 제주도의 문화적인 배경을 나타낸 말로써 돌, 바람, 여자가 많음을 뜻함

재함을 뜻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다풍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연평균 24시간 평균풍속을 보면 제주도는 4.7m/s인데 서울은 2.5m/s 중강진이 1.3m/s로 한국에서는 북쪽으로 갈수록 풍속은 낮아진다.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양쯔강 기단에 기원한 후덥지근한 남풍을 몰고 오는 온대성저기압과 함께 겨우내 대만 부근에 자리하던 제트스트림이 북상하면서 잡아끌어 올리는 인행현상을 일으켜 극심한 악천후가 제주도에 지속된다.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 시기를 바람의 신이 찾아오는 달이라 하여 소위 영등달이라 하였다. 영등달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건조한, 혹은 비를 동반한, 갈피를 못잡는 ‘영등바람’인 돌풍이 여름철의 태풍보다 더 거칠고 변덕스럽게 몰아쳐 많은 재난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악천후 현상을 오랫동안 경험한 제주도민 들은 음력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바람의 여신인 ‘영등할망’을 모시는 문화를 만들어 냈고, 특히 해촌 주민들은 샤만에 의한 제사로서 ‘굿’을 아직까지 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물론 출어도 안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설령 태풍이나 영등바람이 아니더라도 일년 내내 해륙풍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무풍인 날은 하루도 없게 된다.

고온 다습한 기후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 것 외에 기후적으로 한반도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우선 연강수량이 2,000mm 이상으로 한국 최다우지가 되며, 계절별 강수형태는 해양성 기후를 보여 비교적 고른 편이나 그래도 태풍이 빈번하게 엄습하는 여름과 가을에 강수량이 많게 된다. 겨울의 강수는 황해 바다를 지나 불어오는 겨울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악지대에서는 눈이 되나 해안 지대에서는 비가 되어 내린다.

이렇게 강수량이 많음에도 토양이 모두 화산회토로 되어있어, 논농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연평균 15.2℃로 기온은 최난 월이 26.5℃, 최한 월이 4.9℃로 등위 도에 있는 일본의 후쿠오카와 비슷하다. 그러나 최한 월의 평균 기온만 보면 제주도는 등위 도에서 0.3℃를 보이는 중국의 시안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3.5℃를 보이는 서울, 한반도 북단 중강진의

-20.8℃에 비해서 겨울 기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이렇게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한국의 선 벨트가 되어 한반도는 물론 이웃 일본의 원고농업지대로 각종 과수와 채소, 화훼 등을 재배,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절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는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지방에서는 겨울에 실외에서 할 수 없었던 놀이도 제주도에서만만큼 실외에서도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3) 공간적 기반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삼다(三多)의 환경이란 기반 위에 형성되고 전개되어 왔다.

제주도는 화산 지형으로 하천은 거의 건천이며, 토양은 화산 회토로 돌이 많고 물이 땅속으로 쉽게 스며들어 물이 귀한 만큼 제주도의 토지 이용은 전작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한라산에는 1,700여종의 식물들이 자생한다. 지리학상 한반도의 서남해상 즉,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자생적인 생활 문화에 본토와의 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북방문화를, 그리고 해류를 통해 남방문화를 유입할 수 있었다.

각박한 풍토조건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독립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자연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양식으로서 향회, 연자매 관리집단, 용수집단, 계, 부락제, 수눌음, 증답 등의 형태가 발달했고, 개인적 대응양식으로는 즈낭정신과 분가주의, 균분상속, 제사분할의 가족제도 등이 발달하여, 그 경제적 효율과 근검절약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질이 척박하여 토지 생산성은 낮았지만 바다의 풍부한 각종 해산물들이 있어 잠수와 어업에 종사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한라산에 자생하는 수많은 식물 종들은 생활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제주도의 전통사회는 척박한 풍토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여건 위에

형성된 토착 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상호 융화하면서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특수 문화권으로서의 독자성을 띠고 있음을 놀이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낸 놀이로서 순수한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로는 곤충 돌리기, 곤각시 만들기, 물싸움고장놀이, 폭충싸움, 펜싸움, 평뚝새기봉그기, 방칠락, 풀놀이, 뽕이치기, 풀놀이, 돌치기, 공기놀이가 있다. 놀잇감을 사용한 놀이로는 제주도 주변에 많이 널려있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돌을 이용한 뚝돌 들기가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나, 제주도 지방에서는 아동들과 청년이 함께 참여 할 수 있었던 놀이이다. 겨울이나 이른 봄 한가한 때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운동기구 대신 뚝돌을 들어올려 누가 힘이 세고 약한지 서로의 힘을 겨뤄 보기도 하면서 한 때의 시간을 보내었다. 그리고 자연물을 다듬어 놀이 도구로 활용한 놀이로서 지게발걸기 놀이를 들 수 있는데 이 놀이는 지게를 만드는 가지 벌은 나무를 마련하여 잘 다듬은 후, 그 가지 돌힌 데에 발을 올려 딛고서 윗 부분은 손으로 잡아 목발로 걸어갔다, 걸어왔다 하는 놀이의 한가지를 말한다. 이 놀이는 주로 눈이 많이 쌓인 겨울에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계되는 묘기의 가지로 누가 멀리 가나를 경쟁하게 되는 걸음 놀이의 특성을 띠고있다.

그리고 놀이 공간에 있어서 놀잇감과 놀이방법은 비슷하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놀잇감 있는 놀이로 제주도에서의 도래기치기 놀이가 서울에서는「팽이치기」, 경기, 충청「팽이」, 전북「뽕이」, 경북「핑딩」, 전남「뽕돌이」로 전해져오고 있다. 놀잇감 없이 유아나 아동들이 방안에 모여 행해졌던 제주도 행경놀이「원님놀이」,는 경남, 마산은「이거래저거래」, 경기 「한알대 두알대」, 충남「이거리저거리각거리」, 전남「한다리 인다리에복다리」, 청주「한다리인다리」, 부산「한등거리두등거리」, 평양「하나사나머구대구」로 지방마다의 특색을 띤 놀이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외에 노래와 신체유희로 즐겼던 까마귀야까마귀야, 귀잡기, 웃기기, 주먹치기, 꼬집기, 눈(目)싸움, 호박놀이, 밤놀이, 줄드래기놀이, 얼굴그리기

놀이들이 다수 전해져오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의 전통 문화의 공간적 기반은 자연 환경에 대한 공동체 및 개인의 적응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4. 제주도 전통놀이 선행연구 고찰

제주도에 전해져오는 전승놀이는 누가 처음 만들어 전파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 개작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은 민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의 전통놀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의의를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놀이의 실체를 찾는 작업이다. 우선 어린이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놀이의 유형과 놀이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서 어린이들 속에 존재하는 놀이의 존재방법을 사회적으로 포착하여 동적인 전통놀이를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전통놀이는 유아나 아동의 삶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인의 삶 혹은 그 문화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즉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문화 형태로서 놀이를 추적함으로써 그 구조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기층의 문화형태가 보다 높은 예술 형태로의 접근과 그 해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를 찾는 것이다.

셋째, 전통놀이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체 발생적이고, 의도적인 목적보다는 무의도적인 창작물이지만, 여기에는 어린이들의 여러 행동과 삶이 놀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이를 기초로 한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넷째, 제주도의 전통놀이는 제주도민의 문화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은 민속학 연구에 도움이 되며, 신체적·자연적 환경이 유사한 이웃나라 놀이와도 비교하여 인류학적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 지역의 전통놀이에 관한 수집은 소수의 뜻 있는 연구자에 의해서 혹은 교육청 당국이나 학교에서 민속놀이 발굴 현장론적인 연구에서 이루어져왔다. 그 예로 진성기(1975)는 남국의 민속놀이에서 성인놀이와 함께 놀이의 민속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수집정리를 하면서 놀이의 특성과 방법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유아와 아동놀이 유형은 가매타기(가마타기), 곤각시 만들기(색시 만들기), 강이잡기(계잡기), 기러기놀이, 끈조(고누), 눈(目)싸움, 눈(雪)싸움, 도래기치기(팽이치기), 둔쇠(마소치기), 둔치기, 뽕돌들기, 뚜렷놀이(두루미놀이), 물싸움고장놀이, 물흥내놀이, 물탈락(말타기), 빠짱치기(딱지치기), 뽕을땅(땅재먹기), 뽕이치기, 숨비질놀이(해녀놀이), 씨왓불임(닭싸움), 잉어놀이, 연날리기(연올리기), 지게발걷기, 죽마타기, 줄드래기놀이(꼬리따기), 쪽기차기(제기차기), 청애조심(외다리싸움) 초파일 7매기잡기, 폭충싸움, 풀놀이, 편싸움(편싸움), 행경놀이(꼬리따기)등 제주도의 독특한 언어 형태로 놀이 이름이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좌혜경(1993)은 제주도 전승동요연구에서 동요를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유희의 진행을 돕거나 박자를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불려지는 유희요와 그에 따른 제주도의 전승 놀이를 소개하고 있다.

제주서초등학교(1994)에서는 전통 놀이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민속놀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에 따른 분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88종의 아동놀이를 문헌과 현장 중심으로 수집해서 직접 전통놀이 지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놀이의 방법을 열거하고 있어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자료이다.

제주도 북제주교육청(1993)의 향토문화 전승교육 자료는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망라되고 놀이의 방법이 상세히 정리되어 교육 현장에서 조사될 수 있는 장학자료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청 장학자료(1991)에 의하면 진성기의 남국의 민속놀이에 있는 62종의 민속놀이들을 우리고장의 민속놀리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있다.

이상과 같은 제주도 전통놀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방

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전승되고 있는 유아와 아동들의 놀이를 수집하여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둘째, 수집에 의한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분류를 하기 위하여 놀이의 주체인 연령과 성별 분류, 집단크기, 놀이가 행해진 시기에 따라 계절별, 연중 분류, 놀이 장소인 실내·실외 놀이들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분석 틀을 마련하여 연구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셋째, 제주도 전통놀이를 문화적 측면의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 전통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는다.

넷째,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놀이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도 지역의 전통놀이와 한국의 전통놀이를 비교해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놀이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제주도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한 57종의 전통놀이로서 이들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선정되었다.³⁾

첫째,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아동들이 놀았던 놀이로서 제주도의 전통민속이 담긴 전승놀이들이고

둘째, 한일합방이전부터 1970년대까지 주로 행해지고 전래 되어온 놀이로서 그 내용이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놀이들이며

셋째, 유아나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간접적 혹은 부분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놀이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총 57종의 제주도 전통놀이는 타지역에서 발굴되지 않은 고유한 놀이로 추정되는 13종과 타지역의 전통놀이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17종 그리고 그 명칭이나 놀이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는 27종의 놀이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주도 고유의 전통 놀이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뚜렷놀이, 강이잡기, ㄱ매기잡기, 꿩똥새기봉그기, 물싸움고장놀이, 빅돌림, 뽕이치기, 숨비질놀이, 잉어놀이, 펜싸움, 폭충싸움, 곤충돌리기, 물흥내놀이 등이며 타지역에서 발견되는 전통놀이의 명칭이나 놀잇감 방법에 있어 거의 동일한 놀이로는 공기돌놀이, 공치기, 눈(目)싸움, 눈(雪)싸움, 돈치기, 못치기, 소꿉놀이, 죽마타기, 지계발걷기, 풀놀이, 주먹치기, 웃기기, 꼬집기, 귀잡기, 고무줄놀이, 똥돌들기, 까막잡기 등을 들 수 있다.

놀이방법은 비슷하나 제주도 이외의 한국의 전통 놀이와는 다른 이름으

3) 본 연구에서는 진성기(1975), 제주도제주시교육청(1991), 제주도(1992), 제주서초등학교(1994), 수원초등학교(1995), 제주도민속연구소(1997)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제주도 전통놀이를 추출하였음을 밝혀둔다.

로 불려지는 놀이로 가매타기(가마타기), 곤각시만들기(풀각시만들기), 굴매밧기(그림자밧기), 끈조(고누), 녁동배기놀이(웃놀이), 도래기치기(팽이치기), 물탈락(말타기), 빠쟁치기(딱지치기), 뽕을땅(땅재먹기), 고블락(숨박꼭질), 줄드래기놀이(꼬리따기), 청애조심(외다리싸움), 행경놀이(다리헤이기), 오니잡기(술래잡기), 기러기놀이(닭살이), 끈조(고누),가 있는데, 그 중 가매타기나 끈조, 녁동배기놀이, 뽕을땅, 줄드래기놀이, 방칠락 등의 놀이는 그 방법에 있어 타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놀이를 일차적으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함으로써 양화 하였고 <표Ⅲ-1>의 분석 틀을 참조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즉, 주체, 시간, 공간이라는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연령, 성별, 집단크기, 계절, 연중, 놀이환경, 놀잇감의 7개 범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표Ⅲ-1> 자료분석 틀

영역	범주	놀이의 분류
주체	연령	· 유아기(5~7세) · 아동기(8~13세)
	성별	· 남아 · 여아 · 혼성(공통)
	집단크기	· 단독(개별) · 소집단 · 대집단
시간	계절	·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 사철
공간	놀이환경	· 실내 · 실외
	놀잇감	· 놀잇감이 있는 놀이 · 놀잇감이 없는 놀이

첫째, 주제라 함은 제주도 전통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놀이를 즐겼던 대상을 말하는데, 우선 연령별로 유아기와 아동기로 나누었다. 이는 그 이전 단계인 영아기 놀이부터 분류해야 하나, 제주도 전통놀이에서는 영아기 놀이가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놀이 수는 적으나 특징 있게 했던 유아기 놀이들을 5~7세로 구분하였고, 아동기면서 어른들의 놀이에 어렵지 않게 참여 할 수 있었던 놀이들을 아동기인 8~13세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성별 특성으로 볼 때 현대놀이에서와 비슷하게 전통놀이에서도 용맹스럽고 씩씩한 놀이들은 주로 남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놀잇감을 가지고 하는 정적인 놀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특성을 보여, 이를 여아와 남아로 구분하여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혼성(공통)으로 즐겼던 놀이들은 무엇이며 그 특성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로 구분하였다.

놀이에 있어서 집단의 크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혼자서도 가능한 놀이를 단독 놀이로 하고, 소수의 인원들이 참여했던 놀이를 소집단 놀이로 하였으며,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하여 즐겼던 놀이를 대집단 놀이로 구분하였다.

둘째, 시간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주도 전통놀이가 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난의 시기들이 연유되어 있으며 전통문화의 흐름 속에 계절별로 이루어졌던 놀이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놀이를 분류하였고, 계절과 관계없이 즐겼던 놀이를 연중(사철)놀이로 구분하였다. 또한 분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 시기와 때를 맞추어 행해졌던 놀이도 시간적 특성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공간이라 함은 제주도 어린이들의 놀이가 이루어졌던 생활공간을 말하며 제주도 유아와 아동들이 놀이를 했던 주변의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다. 또한 실내·외 어디서든 즐길 수 있었던 놀이를 실내·외로 나누었으며 유아와 아동들이 가지고 놀았던 놀잇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놀잇감의 유무도 조사하였다.

IV. 제주도 전통놀이의 특성

1. 주체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된 전통놀이들을 살펴 본 결과, 제주도에 이어져 오는 문화권 안에서 놀이 부분을 분석해 볼 때 제주도의 전통놀이는 다른 문화에 비해 그리 발달한 편이 아니다. 이는 아마도 놀이를 가르쳐 주고 함께 해야 할 부모나 어른들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겨우 연명할 수 있을 만치 어려운 생활환경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노동 속에서도 놀이가 조금씩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놀이를 하고자 했던 제주도 유아와 아동들의 열망이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시나 농한기 또는 특정 절기 때 아동들이 어른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별

본 연구에서 선정된 57종의 제주도 전통놀이 중 유아(5~7세)시기에 할 수 있는 놀이로는 17종(29.9%), 아동기(8~13세) 놀이는 40종(70.1%)이다.

5~7세 유아들이 즐길 수 있었던 놀이로는 주로 신체를 이용한 귀잡기, 웃기기, 꼬집기, 주먹치기, 곤충돌리기, 죽마타기, 까마귀야, 눈싸움(目), 소꿉놀이, 행경놀이, 곤각시만들기, 지게발 걷기, 풀놀이, 까막잡기, 물싸움고장놀이, 물흥내놀이, 고블락 등으로 전체적인 전통놀이 비중으로 볼 때 유아기의 놀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의 놀이이지만 유아가 함께 한 놀이로는 기러기놀이, 오니잡기, 공기돌놀이, 돌치기, 굴매밧기, 공기치기, 뽕을땅, 구녁치기, 가매타기, 줄드래기놀이가 있다.

8~13세 아동들이 즐겼던 놀이 중에는 편의상 어린이놀이, 소년소녀놀이, 성인 남녀 놀이로 구분되고 있으나(김광언, 1982), 실제로는 다양한 연

령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가 많았다. 예를 들어 빅돌림, 똥돌들기, 7메기 잡기, 펜싸움, 청애조심, 녀동배기놀이, 돈치기등은 주로 성인들이 했던 놀이들이지만 8~13세 아동들이 또한 참여하여 즐겼다.

2) 성별

분석대상이 된 놀이의 내용이나 방법에서 성별 특성을 띠고 있는 놀이들을 조사해 보면, 유아기(5~7세)에는 성별 특성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나, 아동기 놀이로 접어들기 시작한 8세부터는 또래와의 집단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성에 따른 놀이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었다.

선정된 57종의 놀이 중 남아의 놀이는 15종(26.3%)이고 여아의 놀이는 6종(10.6%)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 구별 없이 혼성(공통)으로 이루어진 놀이는 전체놀이의 36종(63.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 전통놀이를 분석한 김광연(1982)의 연구와는 상반된 내용을 보였다.

김광연(1982)은 한국의 전통놀이 중에서는 성인 남자의 놀이가 가장 많고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만의 놀이가 전체의 약 반이 되는 47.9%를 차지한 반면 여성만의 놀이는 14.2%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 전통놀이에서는 남녀구별이 뚜렷하지 않는 혼성(공통)놀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한국의 전통놀이에서 가마타기 놀이가 제주도에서는 가매타기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놀이는 한국의 전통놀이에서는 주로 남아들만 행해지는 놀이로 전해져오고 있으나 제주도의 전통놀이에서는 남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주체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3) 집단크기

유아기 놀이에서는 주로 상대방과 마주보고 하는 놀이나 소집단으로 행해지는 놀이들이었으나, 8세 이후 아동을 위한 놀이에서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집단 형태의 놀이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놀이에 따라 정해진 규칙이 있고, 편을 나누어 경쟁을 하여 승부를 내는 놀

이들이 많다.

김광연(1982)은 전통놀이 형태를 단독놀이, 상대놀이, 대집단놀리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 57종의 놀이 중 단독(개인)놀이가 8종(14.0%)이며 소집단(상대)놀이가 38종(66.7%), 대집단 놀이가 11종(19.3%)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단독놀이이면서 소집단(상대)형태로 할 수 있는 놀이는 3종이고 소집단놀이이면서 대집단으로 할 수 있는 놀이는 5종으로 조사되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놀이로는 곤충돌리기, 도래기치기, 쪽기차기, 배떨락, 연올리기, 놀이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혼자서 놀았을 때는 단독놀이가 되기도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할 때는 소집단이나 대집단놀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놀이로는 제주도의 놀이 특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놀이로 귀잡기, 옷기기, 꼬집기, 주먹치기, 눈싸움(目), 가매타기, 곤각시 만들기, 끈즈, 물싸움고장놀이, 소꿉놀이, 등이 있으며 소집단 놀이 또한 여러 유아와 아동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는 대집단 놀이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대집단 놀이는 제주도 문화 특성상 많은 인원의 유아나 아동들이 모여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대집단으로 행해졌던 놀이중에 대보름날 밝은 달빛 아래 동네 아이들이 많이 모여 행해졌던 기러기놀이가 있었고 노농놀이에 어른들과 함께 함으로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된 꿩뽕새기봉그기, 강이잡기, ㄱ매기잡기 놀이들이 있었다.

제주도 전통놀이에서 나타나는 집단크기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전통놀이에서는 설날이나 대보름날 또는 놀이에 따라 대집단으로 행해지는 놀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 전통놀이에는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놀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전통놀이를 연령별, 성별, 집단크기별 특성에 따라 분류, 정리해보면 <표Ⅳ-1>과 같다.

<표Ⅳ-1> 제주도 전통놀이의 주체적 특성

놀이이름	연령별	성별			집단크기별		
		남아	여아	혼성	단독	소집단	대집단
귀잡기	5-7세			○		○	
웃기기	"			○		○	
꼬집기	"			○		○	
주먹치기	"			○		○	
곤충돌리기	"			○	○		
눈싸움(目)	"			○		○	
소꿉놀이	"		○			○	
까마귀야	"			○			○
행경놀이	"			○		○	
곤각시만들기	"			○		○	
죽마타기	"	○					○
지게발걸기	"	○				○	
풀놀이	"			○		○	
까막잡기	"			○		○	
물싸움고장놀이	"			○		○	
물훙내놀이	"			○			○
고블락	"			○			○
뚜렘놀이	8-13세			○		○	
가매타기	"			○		○	
기러기놀이	"			○			○
꼰즈	"			○		○	
눈싸움(雪)	"			○			○
도래기치기	"	○			○		
돈치기	"	○				○	
똥돌	"	○				○	
물탈락	"	○				○	
빅들림	"	○				○	
빠짱치기	"			○		○	
쪽기차기	"	○			○		

놀이이름	연령별	성별			집단크기별		
		남아	여아	혼성	단독	소집단	대집단
뽕이치기	8-13세			○		○	
숨비질놀이	"			○		○	
강이잡기	""			○	○		
돌치기	"	○				○	
넉동배기놀이	"			○		○	
오니잡기	"			○			○
줄도래기놀이	"			○			○
청애조심	"	○				○	
폭충싸움	"	○				○	
펜싸움	"			○			○
굴매밟기	"			○		○	
꿩똥새기봉그기	"			○	○		
공치기	"		○			○	
구쟁기놀이	"			○		○	
배떨락	"			○	○		
방칠락	"		○			○	
오자미놀이	"		○				○
씨왓붙임	"	○				○	
구넉치기	"	○				○	
뽕을땅	"			○		○	
고냉이방치기	"			○		○	
공기돌놀이	"		○			○	
잉어놀이	"			○			○
연올리기	"	○			○		
ㄱ망구슬치기	"			○		○	
ㄱ매기잡기	"			○	○		
못치기	"	○				○	
고무줄놀이	"		○			○	
계	57종	15(26.3)%	6(10.6)%	36(63.1)%	8(14.0)%	38(66.7)%	11(19.3)%

<표IV-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도 전통놀이를 주체별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놀이를 가장 많이 해야 할 유아기 놀이는 아동기 놀이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에 있어서 한국 전통놀이에서는 여아나 공통놀이보다 남아놀이가 훨씬 많은 반면 제주도 전통놀이에서는 남녀, 혼성(공통)으로 이루어진 놀이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2. 시간적 특성

전통놀이 대부분은 세시 풍속의 하나로 존재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민속놀이를 ‘세시놀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다. 놀이는 ‘공동체가 해마다 집단적으로 되새김하는 1년의 일정표’(심우성, 1998)인 세시풍속을 영위해나가는 데 있어 일종의 유희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은화(1989)는 전통놀이의 특성으로 전통놀이의 발상이 대부분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즉 제사 의식이 놀이 형식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통놀이는 사계절의 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써 계절과 특정 절기(행사)에 따른 놀이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놀이는 민중의 공감에 의해서 생기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민족생활을 이해하고, 민족심리, 민족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도 전통놀이들을 계절 및 연중 놀이로 그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절별

본 연구에서 선정된 놀이 중에 봄에 주로 했던 놀이로는 들이나 산에 나가 풀이나 꽃을 가지고 놀았던 놀이로 곤각시만들기, 물싸움고장놀이, 뽕이치기, 풀 놀이가 있는데 이중에 물싸움 고장놀이는 제주도만의 특징적인 놀이 형태로서 일명 “오랑캐꽃싸움” 놀이라고도 한다. 이 놀이는 늦은 봄, 보리 수확이 한창인 고비를 전후하여 남녀 유아들이 오랑캐꽃을 따내어 서로 그 꽃의 목 부분을 맞대어 걸어 잡아당겨 누구의 꽃이 잘리지 않고 오래 견뎌내느냐의 시합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꽃을 두고 서로 상대방의 여러 꽃대를 잘라내게 되면 이기는 놀이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한 꽃 모양이면서도 그 중에는 꽃대가 좀 튼튼한 꽃이 있어서 그러한 꽃을 가진 유아가 이기는 놀이이다. 또한 봄 놀이로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했던 뽕이치기 놀이를 들 수 있는데 이 놀이는 보통

4월 초순부터 떠꽃이 세기 전까지는 “뽕이빠레간다”고 해서 아이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 몇 주머니씩 뽕이를 빠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빠온 뽕이는 벗겨서 그 속의 연한 것은 먹는 것이지만은 주로 놀이로 “뽕이치기”를 하게 된다. 뽕이치기는 쌍방이 몇 개씩 내 놓은 뽕이를 가지고 돌리며 밑으로 떨어치워 받을 만들어지게 한 다음 그 받 속에 뽕이의 한끝이 닿을 만큼의 뽕이를 상대방으로서는 내놓게되는 놀이다. 그러므로 받은 크면 클 수록 많은 뽕이 끝이 들어갈 것이므로 그 만큼 상대방의 뽕이를 많이 따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여름철에 많이 행해졌던 놀이로는 숨비질놀이를 들 수 있는데 이 놀이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지역 사회에서 여름 한 때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로서 여름철 바다에서 아동들이 함께 목욕을 하다가 물속에 누가 오래 잠겨 있나 알아보는 놀이이다. 그리고 여름에서부터 가을로 이어지는 놀이로는 폭충싸움, 구쟁기놀이, 굴매밟기, 끈조, ㄱ망구슬치기, 끈충돌리기가 있는데, 이중 폭충싸움 놀이란 팽나무 열매를 총알로 사용해서 싸움을 벌이는 놀이로서 남자 아동들이 대나무 마디를 잘라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알맞은 나뭇가지를 맞추어 손바닥으로 세게 밀어내면 공기의 압력으로 그 알이 나가게끔 총을 만들어 그 대나무 총에 팽나무 열매를 넣어 쏘아 대는데 서로 편을 짜서 폭충싸움을 벌이는 놀이이다. 다음으로 겨울에 행해졌던 놀이로는 가매타기, 녁동배기놀이, 지게발걷기, 눈(雪)싸움, 도래기치기, 돈치기, 똥돌들기, 행경놀이, 구녁치기, 연올리기, 잉어놀이, 뚜럼놀이, 쪽기차기 놀이가 있다.

겨울철 놀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제주도 고유의 전통놀이로서 뚜럼놀이를 들 수 있는데 이 놀이는 ‘두루미 놀이’라고도 하며 겨울철 방안에서 아동들이 순전히 바지만을 가지고 즐기던 놀이로서 아동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바지의 한쪽 다리에 양쪽 다리를 넣고 나머지 다리에는 두 팔과 머리를 넣어 기역(ㄱ)자 모양으로 선 채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며 맞은편과 부딪치며 싸우게 되는 시합 놀이이다. 바지 다리에 온 몸을 담은 꼴이 어찌나 흉측스러웠던지 제주도 사람들은 흔히 걸음걸이나 말숨씨 등

모든 면에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두고 “꼭 뚜렷 같다”고 말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놀이하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함을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제주 시교육청, 1991).

또한 제주지방의 독특한 언어형태로 노래를 부르며 행해지는 놀이로 행경놀이가 있다. 이 놀이는 원님놀이라고도 하며 겨울철 추위를 몰아내고 온기를 돌게 할 수 있는 소박한 전통놀이로서 아동들이 방안에 모여서 서로의 다리를 마주 뻗어 앉아 그 중 한사람이 정해진 동요를 외면서 손으로 다리를 짚어 세어 그 동요가 끝나는 대목에 해당되는 다리를 구부리게 한다. 그래서 누가 양쪽 다리를 먼저 거두게 되나로 선후를 가리는 놀이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짚게 된다.

훈다리인다리 거청개 주너오너버른개
어어장장 고노고노 돌깜빳디 새근

제주도의 전통놀이 중에는 특정 절기에 맞추어 행해지는 놀이가 있는데, 오래 전 제주도는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어서 섬 전체가 하나의 숲을 이룬 것처럼 짐승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 특히 꿩이 많아 제주도 어린이들이 즐겨 불렀던 전래동요에도 꿩을 의인화하여 부른 노래들이 전해져 올만큼 친숙해진 동물로서 제주도 사람들은 3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보리밭, 돌담 옆에 잡초가 있는 자리나 풀밭(출왓)의 돌담을 찾아다니며 꿩달걀(꿩똥새기봉그기)을 줍는 일을 재미로 삼았고 어린이들은 꿩달걀을 잔뜩 주어 치마폭이나 도시락통에 넣어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며 꿩똥새기 빼앗기게임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4월 초파일과 5월 단오를 고비로 조금(밀물도 썰물도 아닌 때)이 되면 “보들래기”(바다 미꾸라지일종)를 낚아 게를 잡는 일이 흔히 있었는데(강이잡기) 이때 잡은 게는 맛있는 반찬이 되었고, 이러한 놀이는 생산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그리고 팔월 보름을 고비로 하여 즐겼던 놀이로 줄드래기 놀이가 있었다.

겨울철 농한기나 설날에 동네 어른과 아이들은 너동배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어른들은 주로 골목이나 마당에 멍석을 깔아 옷판을 벌이고, 아동들은 솥으로 옷판을 그려 참나무나 쪽나무로 옷을 만들어 놀았다. 이러한 놀이들은 특정 절기나 행사 때에만 행해졌던 놀이로서 마을주민과 이웃들 간에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2) 연중(사철)

선정된 57종의 놀이에서 연중 행해졌던 놀이로는 귀잡기, 옷기기, 꼬집기, 주먹치기, 눈싸움(目), 소꿉놀이, 까마귀야, 고블락, 몰탈락, 오니잡기, 공치기, 배떨락, 방칠락, 오자미놀이, 뽕을땅, 공기돌놀이, 고무줄놀이 등이 있다. 이 중 유아기에 행해졌던 놀이로 귀잡기 놀이는 상대의 귀를 잡고서 다음의 사설을 노래하면 상대의 대답에 따라서 귀를 놓아주거나 잡는 일종의 노래 형태의 놀이로서 서로 대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쇠나	통쇠나
놀귀	잡을귀

또한 술래잡기 형태인 고블락 놀이는 한국의 전통놀이와 비슷한 놀이방법으로 술래가 열까지 세고 난 뒤 숨어있는 놀이 자를 찾으러 다닌다. 술래가 찾으려면 미리 약속한 장소의 ‘팡’이라는 지점을 치고서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은 아웃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노랫말을 곁들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곰밥흐민	나오꼭
보리밥흐민	나오지 말라

이러한 제주도의 숨바꼭질 유형은 다양한 규칙을 설정해서 새로운 놀이

유형을 창조하였으며 연중 아동들이 즐겼던 놀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놀이 중 딱지치기가 제주도에서는 빠짱치기, 방칠락(이시끼리, 오랑)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놀이들은 제주도와 가까이 있는 일본의 놀이 문화가 전해져 오면서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놀이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놀이에서는 딱지치기가 어린 유아들의 놀이로 분류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10~12세에 해당되는 아동들의 놀이로 계절에 구애됨없이 행해졌으며 딱지를 따먹는데도 필요한 기술이 여러 가지로 전해져오고 있다. 먼저 상대방 딱지를 뒤집는데 또는 상대방 딱지 밑으로 자기 딱지를 들어가게 하는 데는 딱지 잡은 손을 옷소매 속으로 담고 옷소매와 동시에 딱지를 침으로써 옷소매에서 바람을 일게 하고 그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여 치는 기술이 있으며, 방안에서 입으로 불어 따먹는 빠짱치기는 쌍방이 한 장씩 또는 여러 장씩 딱지를 내놓아 한자리에 모아 놓고는 한숨에 이를 날려 뒤집은 것만을 따먹는 내기이다.

이외에도 내기 놀이의 특성을 지닌 놀이로는 어른들이 놀이를 모방한 돈치기, 씨왓붙임, 끈즈, 녁동배기놀이, 못치기가 있다. 녁동배기놀이와 끈즈는 오늘날에도 아동들 사이에서 윗놀이와 고누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연중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씨왓붙임, 돈치기와 못치기 놀이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중 돈치기 놀이는 동전(銅錢)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한가지를 뜻한다. 주로 정초(正初)때 남자 아동들이 양지바른 마당이나 골목 길가에서 땅바닥에 동전 한 푼 들어갈 만큼 조그맣게 구멍을 파 놓고서 약 4.5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그 구멍에 돈 한 푼씩을 제각기 명중시켜 구멍에 들어간 것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구멍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순차를 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여러 벧들의 돈을 거두어 모아 한 손에 들고 구멍에 명중시켜 던지는 것인데, 그 구멍에 들어간 돈을 몽땅 가지고, 나머지 돈은 넘적한 돌로 맞춰서 맞는 돈은 자기 뚫으로 거두어 가지는 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전통놀이를 계절 및 연중놀이로 나누어 그 특성에 따라 <표Ⅳ-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IV-2> 시간별 제주도 전통놀이⁴⁾

놀이이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비고
귀잡기					○	
웃기기					○	
꼬집기					○	
주먹치기					○	
곤충돌리기		○				6~8월
눈싸움(目)					○	
소꿉놀이					○	
까마귀야					○	
행경놀이				○		
곤각시만들기	○					4월
죽마타기				○		
지계발견기				○		
풀놀이	○					3~4월
까막잡기					○	
물싸움고장놀이	○					3~4월
물흉내놀이					○	
고블락					○	
뚜림놀이				○		
가매타기				○		
기러기놀이			○			한가위
꼰즈		○				
눈싸움(雪)				○		
도래기치기				○		
돈치기				○		
똥돌				○		
물탈락					○	
빅돌림			○			10~1월
빠쟁치기					○	
쪽기차기				○		

4) 본 연구의 시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놀이이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비고
뽕이치기	○					4월초
숨비질놀이		○				6~7월
강이잡기		○				4~5월
돌치기					○	
넉동배기놀이				○		정월
오니잡기					○	
줄도래기놀이				○		달밝은 밤
청애조심				○		
폭충싸움			○			여름~가을
팬싸움			○			
굴매밟기		○				
평뚝새기붕그기	○					3~6월
공치기					○	
구쟁기놀이		○				
배떨락					○	
방칠락					○	
오자미놀이					○	
씨앗붙임					○	
구넉치기				○		
뽕을땅		○				
고냉이방치기					○	
공기돌놀이					○	
잉어놀이				○		
연올리기				○		
ㄹ망구슬치기			○			
ㄹ매기잡기	○					4월초과일
못치기			○			
고무줄놀이					○	
계(57종)	6(10.5%)	7(12.3%)	6(10.5%)	16(28.1%)	22(38.6%)	

<표Ⅳ-2>에서 나타난 놀이들을 분석해보면 봄에 행해졌던 놀이로는 6종(10.5%), 여름놀이 7종(12.3%), 가을놀이 6종(10.5%), 겨울놀이 16종(28.1%), 연중놀이는 22종(38.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놀이를 시기별로 분석한 김광연(1981)의 연구에서 보면 40.7%가 대보름 놀이이며, 20.3%는 정월놀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 전통놀이는 연중 행해지는 놀이가 많은 점으로 보아 제주도의 따뜻한 기후조건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결과임을 말해준다.

3. 공간적 특성

놀이가 이루어지는 평면공간을 놀이마당(놀이터)이라고 부른다(김종만, 1993). 제주도 전통놀이를 알려준 뽕을땅(땅재어먹기)도 놀이 공간이 마당인데 서너 명 또는 많은 아동들이 모여 놀이마당을 이루며 놀았다.

이처럼 놀이는 놀이 공간에서 생겨나고, 또 놀이공간은 놀이의 성격이나 종류에 의해 정해진다.

대부분의 전통놀이가 실외에서 이루어진 점은, 서민층 아동들에게 특별한 교육수단이 없었던 시대에 아동들이 주체가 되어 창조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놀이마당(놀이터)은 타작하는 노동의 공간이었던 마을 사람들이 신명을 자아내는 놀이 공간이면서 아동들이 주된 놀이터로 존재해 왔는데, 제주도의 생활문화라는 공간에서 제주도의 유아들과 아동들이 주로 놀았던 놀이공간은 넓은 마당, 산, 들, 바다가 주된 공간이 되었으며 거기에서 나는 자연물을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았다.

이러한 제주도 전통놀이의 공간적 특성을 실내·외 놀이와 놀잇감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놀이환경

우리나라 전통놀이의 특성에 있어서 실외놀이가 전체놀이의 78%를 차지하고 있듯이(이은화 외, 2001), 제주도 전통놀이 역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이루어진 놀이가 전체 놀이의 42종(73.7%)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친구 삼아 놀았던 유아나 아동들이 주로 놀아지는 장소가 실외인 동네 놀이공터, 산, 들, 바다가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외놀이 중에서도 골목이나 동네어귀, 공터에서 주로 놀았던 놀이로는 기러기놀이, 눈(雪)싸움, 몰탈락, 돈치기, 똥돌들기, 돌치기죽마타기, 오니잡기, 줄드래기놀이, 청애조심, 폭충싸움, 굴매밧기, 까마귀야, 구쟁기놀이, 배뿔락, 방질락, 오자미놀이, 씨왓붙임, 구녁치기, 고블락, 고냉이방치기, 공기돌놀이, 잉어놀이, 연올리기, ㄱ망구슬치기, 못치기, 고무줄놀이, 지게발걸기가 있으며 이 중 몰탈락놀이는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놀이로 “말타기”란 말인데, 이는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어린 소년들로 구성된 놀이의 한 가지를 뜻한다.

이 놀이는 보통 10-12세 안팎의 남자 아동들이 동네 놀이공터나 골목에서 10여명 내외로 한 팀이 되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편 중 한명의 아동이 기둥이 되어 앞에 서고 그 기둥의 허리에 나머지 아동이 등허리를 구부리고 줄을 이으면, 이긴 편에서는 15m쯤 밖에서부터 뛰어와 구부려서 연이어진 상대방의 등허리 위로 차례로 올라간다. 그래서 맨 앞에 탄 아동이 상대방의 기둥이 된 아동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계속 타게 되고 지면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놀이를 계속하게 된다.

또한 노래가 곁들여져 있는 놀이로 제주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까마귀를 의인화하여 어려운 생활상을 표현한 “까마귀야”는 마당이나 골목 또는 나무 그늘에서 이루어진 놀이로, 다른 지방에서는 “여우야 여우야” 놀이와 비슷한 놀이 형태인데, 놀이에 참여한 아동 중 한 사람의 술래를 정하여 그 술래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돌면서 묻고 대답하는 놀이 형태다.

놀이하면서 부르던 노래 말은 다음과 같다.

- (문) 까마귀야 까마귀야 어디간 완디
 (답) 뒷집할망집에 불담으레 갔단왔수다
 (문) 가난 뗏쥐니
 (답) 곤밥줍데다
 (문) 솔은 무신솟이라니
 (답) 납솔입데다
 (문) 손가락은 무신손가락이라니
 (답) 납 손가락입데다

그리고 산이나 들, 목장과 같은 곳을 놀이공간으로 하여 놀았던 놀이로는 주로 목장에서 말을 타고 놀았던 빅들림 놀이와 풀을 가지고 놀았던 풀놀이, 곤충을 잡고 놀이했던 곤충돌리기 외에 물흥내놀이, 물싸움고장놀이, 꿩똥새기봉그기, 뽕이치기 놀이가 있다.

바다를 공간으로 한 놀이로는 숨비질놀이, ㄱ메기잡기, 강이잡기가 있으며, 나무 위가 놀이공간이 되었던 놀이로 펜싸움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놀이에서 실내에서 이루어진 놀이는 많지 않았으나 전해져오는 몇 개의 놀이중 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즐겼던 행경놀이가 있었고, 또한 방안에서 3~4명의 아동들이 모여 즐기던 가매타기와 바지를 이용한 뚜렷놀이가 있다.

실내·외 공간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놀았던 놀이로는 공치기, 쪽기차기, 끈즈, 녀동배기, 도래기치기, 귀잡기, 옷기기, 꼬집기, 주먹치기, 빠짱치기, 까막잡기, 고무줄놀이가 있다.

2) 놀잇감

전통놀이가 주로 실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동을 위한 놀잇감이 주로 자연물이었다는 전통놀이의 특성을 뒷받침 해준다. 제작된 놀잇감이 드물었던 전통사회에서 유아나 아동들은 집 근처에 있는 자연 환경 속에서 나무토막, 나뭇가지, 풀, 돌맹이, 짚 등의 자연물을 접하기 쉬웠으므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물을 놀잇감으로 사용했다.

제주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수도가 들어 온 집이 많지 않아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나 우물물 또는 산이물⁵⁾을 길어다가 사용했으므로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한 도구인 물 허벅이 집집마다 한두 개씩은 있었다. 그래서 물 허벅을 이용하여 물을 길어 나르다 보면 흙을 구워서 만들어진 허벅이라 잘 깨지곤 하여 길바닥에 물 허벅 깨진 조각들이 덩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유아나 아동들은 길에 버려진 물허벅 깨진 조각을 주워 모아서 소꿉놀이용 그릇으로 사용하거나 돌로 뿔과 풀과 함께 물들여 김치 만드는 흥내를 내며 소꿉놀이를 흥미 있게 했었다.

그리고 놀잇감을 가지고 놀았던 놀이 중 풀싸움, 눈(雪)싸움, 팽이치기, 죽마타기, 돌치기, 펜싸움, 곤충돌리기, 물싸움고장놀이, 등은 자연물을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사용한 경우이고, 폭충싸움, 방칠락, 구녁치기, 쪽기차기, 똥돌, 지게발걸기와 같은 놀이는 자연물을 수집한 뒤 약간의 가공을 하여 적합한 놀잇감으로 사용했던 놀이들이다. 자연물을 재료로 하되 성인이 제작하여 준 놀잇감으로는, 도래기치기, 연올리기, 쪽기차기 등이 있다. 이중 도래치기란 “팽이치기”를 말한다. 주로 남자 아동들이 겨울철 마당에서 즐기게 되는 놀이의 한가지이다. 도래기가 만들어지는 나무는 목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일수록 좋으므로 벗나무, 자귀나무, 밤나무 등이 좋고, 소나무는 팽이 만드는데 가장 좋지 않은 나무로 잘 이용하지 않았다.

제주도의 팽이모양은 다른 지방의 팽이와 비슷하나 뾰족 하게 깎은 쪽은 그 끝에 닳아지지 않게 쇠뿔을 박고 돌 같은데 끝을 다시 둥글둥글하게 갈아 마루바닥이나 흙 위에서 잘 돌게 만들었다. 팽이치기에서 멀리 치기는 도래기채의 끈이 무게가 있을수록 힘이 더 나서 멀리 칠 수도 있고 빨리 나가게 해서 빨리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오히려 팽이를 죽게 해버리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전통놀이를 놀이환경과 놀잇감의 유

5) 제주도 바다 근처에서 나는 샘물로써 밀물일 때는 물이 들었다가 썰물일 때는 물이 빠지는 물로 동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다.

무로 나누어 그 특성을 분류, 정리해보면 <표Ⅳ-3>과 같다.

<표Ⅳ-3> 공간별 놀이분석

놀이이름	놀이환경			놀잇감		비 고
	실내	실외	실내외	유	무	
귀잡기			○		○	
웃기기			○		○	
꼬집기			○		○	
주먹치기			○		○	
곤충돌리기		○		○		곤충
눈싸움(目)	○				○	
소꿉놀이		○		○		자연물
까마귀야		○			○	
행경놀이	○				○	
곤각시만들기		○		○		뿌리뽕이
죽마타기		○		○		막대기
지게발걸기		○		○		나뭇가지
풀놀이		○		○		진풀
까막잡기		○			○	
뭇싸움고장놀이		○		○		오랑캐꽃
뭇홍내놀이		○			○	말고삐
고블락		○			○	
뚜렘놀이	○			○		바지
가매타기	○				○	
기리기놀이		○			○	
끈조			○	○		말판, 작은돌
눈싸움(雪)		○			○	
도래기치기			○	○		팽이
돈치기		○		○		동전
똥돌		○		○		둥근돌
뭇탈락		○			○	
빅돌림		○			○	말
빠짱치기			○	○		딱지
쪽기차기			○	○		제기

놀이이름	성 별			놀잇감		비 고
	실내	실외	실내외	유	무	
뽕이치기		○		○		떠꽃
숨비질놀이		○			○	
깁이잡기		○		○		바닷게
돌치기		○		○		작은돌
넉동배기놀이			○	○		웃
오니잡기		○			○	
줄도래기놀이		○			○	
칭애조심		○			○	
폭충싸움		○		○		팽나무열매
펜싸움		○		○		먹구슬열매
굴매꿍기		○			○	
핑뚝새기봉그기		○		○		핑달갈
공치기			○	○		공
구쟁기놀이		○			○	
배떨락		○		○		줄넘기
방칠락		○		○		돌, 허벅조각
오자미놀이		○		○		콩주머니
씨앗붙임		○		○		닭
구넉치기		○		○		나무막대 자
뽕을땅		○		○		돌
고냉이방치기		○		○		돌, 허벅조각
공기돌놀이		○		○		작은돌
잉어놀이		○			○	
연올리기		○		○		연
ㄱ망구슬치기		○		○		구슬
ㄱ매기잡기		○		○		뉘시 줄
못치기		○		○		못
고무줄놀이			○	○		고무줄
계(57종)	4(7.0%)	42(73.7%)	11(19.3%)	35(61.4%)	22(38.6%)	

위의 표<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7종의 제주도 전통놀이 중 실내 놀이는 4종(7.0%), 실외놀이 42종(73.7%), 실내외놀이 11종(19.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놀잇감이 사용된 놀이는 35종(61.4%)과 놀잇감이 사용되지 않았던 놀이는 22종(38.6%)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놀이나 제주도 전통놀이에서 사용된 놀잇감 대부분은 인공물이 아닌 순수한 자연물을 이용한 것들이며, 표에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놀잇감 없이 신체를 이용한 놀이들은 주로 유아기 놀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공간적 특성에서 나타난 놀이 환경과 놀잇감들은 한국의 전통놀이와 비슷하게 실외에서 이루어진 놀이들이 더 많았으며, 까마귀야와 같은 놀이 노래는 제주도 어린이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노래와 함께 놀이로 승화시킨 제주도 전통놀이의 특성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제주도 전통문화라는 맥락에서 전통놀이가 갖는 의미를 주체, 시기, 공간별로 분석해 보고, 한국의 전통놀이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에 있는 놀이자료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주도 전통놀이의 계승발전 및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통놀이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놀이들이 많으므로 놀이를 문화와 관련지은 연구 방법을 택하였고,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고찰하였다.

더구나 제주도 전통놀이에 관한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연구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일차적으로 문헌을 통하여 조사한 제주도 전통놀이 중 57종의 놀이를 선정하여 주체(연령, 성별, 집단크기)별, 시간(계절, 연중)별, 공간(놀이환경, 놀잇감)별로 분류하여 이를 백분율 산출하는 양적 분석과 분석 틀에 의한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놀이를 주체별로 분석해 본 결과, 유아기(5~7세)에 해당하는 놀이는 제주도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환경을 이겨 나가기 위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놀이를 가르칠 여유가 없었으므로 아동기(8~13세) 놀이처럼 어른들의 놀이를 모방하거나 노동에 함께 참여하여 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아기의 놀이는 아동의 놀이에 비해 그 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놀이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아가 함께 참여하여 즐겼던 놀이로 기러기놀이, 오니잡기, 공기돌놀이, 돌치기, 굴때밟기, 공치기, 뽕을

땅, 구덕치기, 가매타기, 줄드래기놀이가 있었다. 그리고 어른이 주체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동이 함께 즐긴 놀이는 빅돌림, 꿩똥새기봉그기, 씨왓붙임, 못치기, 숨비질놀이, ㄱ매기잡기, 강이잡기 놀이가 있었다.

성별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의 전통놀이에서 남아놀이가 여아 놀이보다 3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즐겼던 놀이들이 6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주도의 주체적인 문화 특성이 놀이 문화에도 반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으로는 혼자서 하는 단독놀이가 14.0%, 소집단놀이 66.7%, 대집단 놀이가 19.3%이다. 이는 한국의 전통놀이에서 대집단 놀이가 많은 반면, 제주도 전통놀이에서는 작은 마을을 공동체로 하는 삶을 살아 온 제주도 사람들에게서 단체적으로 많이 모여 행해졌던 행사놀이가 많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둘째, 시간적 특성에서 나타난 놀이의 분석에서는 우선 계절별로 이루어진 놀이들을 분석한 결과 봄에 행해진 놀이는 10.5%이며, 여름놀이는 12.3%, 가을에 주로 했던 놀이는 10.5%이고 겨울놀이는 28.1%로 나타났는데,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행해졌던 놀이는 38.6% 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의 전통놀이와 비교하여 분석해 볼 때, 한국의 전통놀이에서는 겨울에 주로 이루어지는 놀이가 전체놀이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 전통놀이에서는 연중 행해지는 놀이가 전체놀이에 비해 많았다. 그것은 제주도의 기후조건이 육지에 비해 날씨의 비교 차가 심하지 않고 온대성 기후에 속하고 있으므로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놀이를 할 수 있었던 점이 특징으로 나타남을 말해 준다.

셋째, 공간적 분석 결과로는 제주도 유아나 아동들의 놀이 공간이 산이나, 들, 바다가 주공간이었으므로 놀이 환경도 자연과 만나 이루어진 놀이들이 많았다. 그 중에 제주도에 많은 말들을 방목하다보니 말과 함께 하는 놀이인 빅돌림이나 말흉내를 놀이로 표현한 말흉내놀이가 전해져오고 있다. 또한 사면이 바다인 곳에서 생활한 제주도 어린이들은 바다를 두렵

지 않게 생각하여 음력 4월 초파일에는 일년 중 7매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날이라 하여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바다로 몰려들었고 육지의 어린 아동들은 흥내내기도 어려운 놀이로 물 속에서 오래 동안 호흡을 참는 숨비질놀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연 환경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주도 유아나 아동들이 주로 가지고 놀았던 놀잇감도 풀, 나무, 돌, 꽃, 곤충, 나무열매 등 자연에서 얻어진 놀잇감이 대부분이었고 놀잇감 있었던 놀이들도 주로 자연물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놀이임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본 연구 과정을 통해 분석한 제주도 전통놀이의 주제, 시간, 공간적 특성에 기반하여 연구의 결론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제주도 전통놀이는 주체의 평등성을 나타내는 놀이 문화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놀이에서는 성인 남자의 놀이가 가장 많고 연령에 관계 없이도 남성만의 놀이가 전체의 약 반이나 되는 47.9%를 차지한 반면 여성만의 놀이는 14.2%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김광언(1982)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제주도 전통놀이에서는 남아놀이가 15종(26.3%), 여아놀이는 6종(10.6%)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했던 남녀 놀이는 36종(63.1%)으로 한국의 전통놀이에서 나타난 남아놀이 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제주도 전통놀이는 삼다(三多) 문화의 영향과 함께 남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감으로써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영향으로 보이며 놀이 문화에 있어서도 남녀가 서로 놀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놀이문화의 평등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노동 지향적 놀이 문화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질학상 화산회토이면서 바다에서 유입되는 해수 성분의 영

향으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되는 곡식이 없었다. 때문에 제주도 전통 사회에서 살았던 제주도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 밭에서 거둬들이는 곡식보다는 산이나 바다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삶의 방식으로 제주도 여성들은 바다 밑 수심 깊은 곳에까지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들어가 전복을 따거나 해산물을 채취하여 식생활 또는 경제생활을 꾸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제주도 아동들은 12세만 지나면 물질을 할 줄 알았고, 초하루나 보름 때를 맞춰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거둬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산이나 밭에서 썩 달걀을 주워 담으며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으며 이러한 노동이 노동이라는 힘겨움보다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놀이 문화로 승화되어 어른과 아동들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것이다.

셋째, 자연 친화적 놀이 문화가 조성된 곳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전통사회의 유아나 아동들은 자연을 공간으로 한 생활환경 속에서 자연에서 나는 채취물을 이용하여 놀잇감을 만들어 놀았으며, 가족 모두가 밭이나 바다에 일을 하러 나가고 혼자서 집을 지키며 외로웠던 유아들은 주변에서 나는 곤충을 잡아 돌리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보기 어려워졌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 근처에 있는 밭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꿩이나 까마귀들을 의인화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려했던 놀이 노래가 있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란 제주도 아동들은 여름이면 바다근처에서 해산물을 잡거나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잠수를 익히기 위한 방법으로 숨비질놀이를 하며 자연과의 친화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즐겼다.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고유의 전통문화 전승자들이 고령화되고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현존해 있을 때 그동안 전승되어오고 있는 놀이에 관해 민속학적 접근방식으로 현지 조사를 통한 수집과 발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전통놀이와 한국의 전통놀이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 보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 문화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더 나아가 이웃나라의 놀이문화와의 상호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제주도 전통놀이는 후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위하여 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전통놀이가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지역사회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겠고,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해 나가야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고재환(1986). 제주 속담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교육부(1993). 유치원 교사용지도서: 유아전통놀이 교육활동지도자료.
- 교육부(2000).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활동지도자료. 서울: 교육부.
- 김광언(1982). **한국의 민속놀이**. 서울: 인하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9). 민속놀이. 서울: 대원사.
- 김경희(1986). 전통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옥(1997). 전통놀이가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옥(1997). 전통놀이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찬(1970). **생활·문화·교육. 신 교육학강좌 5**.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인희(1981). **한국의 가치관, 무속과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 김정혜(1993). 전통놀이의 5세 유아를 위한 적용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만(1993). **아이들 민속놀이**. 서울: 우리교육.
- 김종천(1982). 무속에 나타난 제주도민의 생활의식 - 무속신화 본풀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향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신행철 편, **제주사회론2**, 404-42). 서울: 한올아카데미.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도서출판각.
- 수원초등학교(1995). 삼무정신 지도자료. 미간행자료.
- 신동주(1998). 유아전통놀이 현장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19(1), 141 -154.

- 심우성(1996). **한국의 민속놀이**. 서울: 동문선.
- ____ (1998). 민속문화론 서설. 서울: 동문선.
- 양영미(2002). 유아의 전통놀이에 대한 인식과 현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옥자·김미숙(1997). 놀이 문화적 측면에서 본 밀양 백중놀이. **부산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제 13집**, 89-108.
- 양창선(2000). 제주 전통문화의 전승 교육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운영란(1996).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전통놀이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1981). **한국고유의 아동놀이**. 서울: 정민사.
- ____ (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성문각.
- 이대균(1995). 유아를 위한 전통놀이 교육활동. 서울: 양서원.
- 이명희(1985). 유치원 민속놀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자(2001). 유치원의 전통놀이 활용에 관한 실태 및 지각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1989). 전통놀이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화·정진·박현주·김현정(2000). 문화와 놀이와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1)**, 43-58.
- 이은화·홍용희·조경화·엄정애(2001). 한국의 전통아동놀이 고찰. **유아교육연구, 21(1)**, 117-140.
- 이창기(1999). **제주도 인구와 가족**.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임재해(1986). **민속문화론**. 서울: 문화와 지성사.
- 제주도(1992). **제주도의 문화유산**.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미간행자료.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 전통문화**. 미간행자료.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도 민요곡집**. 미간행자료.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문화**. 미간행자료.
- 제주도 북제주교육청(1993). **향토문화 전승자료**.
- 제주도서초등학교(1994). 민속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실 만들기. 교육부지정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 제주도 제주시시교육청(1991).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장학자료 '91-IV). 미간행자료.
- 조경만(1989). 놀이문화, 금호문화, 6월호. 152-155.
- 조성채(1995). Huising의 놀이에 대한 고찰. -Homo ludens를 중심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제 3집**, 59-70.
- 진성기(1975). **남국의 민속놀이**. 서울: 흥인문화사.
- 진성기(1997). **제주도 민속**. 제주: 제주도 민속연구소.
- 지춘상(1980). **아이들 놀이**. 민족문화대관. 서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좌혜경(1993). **제주전승동요**. 서울: 집문당.
- 최상수(1985). **한국 민속놀이연구**. 서울: 성문각.
- 현용준(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 집문당.
- Al-Shatti A. & Johnson J.(1984). Free play behaviors of middle class Kuwaitis and American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ERA, New Orleans.
- Bloch, M. N. (1984). Play materials. *Childhood Education*, **60**, 345-348.
- Bower, E., Ilgaz-Carden, A. & Nori, K.(1982). Measurement of play structures: Cross-cultur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315-329.
- Hrncir, E., Speller, G., & West, M.(1983). What are we testing?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infant competence(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30 309).
- Huizinga, J. (1993). 호모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연구. 김윤수 역. 서울: 도서출판까치.

- Lefever, H.(1981). "Playing the dozens": A mechanism for social control. *Phylon, 42*, 73-85.
- McLoyd, V.(1980). Verbally expressed modes of transformation in the fantasy play of Black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1133-1139.
- Montare, A., & Boone, S.(1980). Aggression and paternal absence: Racial-ethnic differences among inner-city boy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223-232.
- Robinson, C.(1978). The uses of order and disorder in play: An analysis of Vietnames refugee children's play(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153944).
- Schwartzman, H. B.(1978). *Transformation: The anthropology of Children's Play*. New York: Plenum.
- Udin, O., & Shmukler, D.(1981).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economic and home background factors on children's ability to engage in imaginative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66-72.
- Yawkey, T., & Alvarez-Dominiques, J.(1985). Comparisons of free play behaviors of Hispanic and Anglo middle-class SES five-year-ol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ERA, New Orleans.

부 록

<분석대상놀이>

놀이이름	놀이방법	유사놀이
가매타기	혼사놀이라고도 하며 겨울철 소년소녀들이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가마모양을 만들어 “새각시 시집간다”, “새서방 장가간다”는 말을 하며 손목 가마 위에 한사람을 태우고 방안을 돌게 된다.	가매타기
기러기놀이	팔월한가위나 달 밝은 밤에 어린이들이 키차레로 늘어서서 앞에 있는 친구의 허리를 붙잡고 술래인 귀신에게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대집단 형태의 놀이	쪽제비, 닭살이
강이잡기	음력 4월초파일과 5월 단오를 고비로 하여 조금인 때 보들래기라는 작은 고기를 미끼로 바닷게를 잡는 일종의 노동 놀이다.	
공기돌놀이	따먹기의 대표적인 놀이로 작은 돌멩이 또는 나무 열매를 주워 모아 다섯 알 또는 여러 알로 약속하여 따먹기 놀이를 할 수 있다	
고냉이방치기	지름이 10cm되는 납작한 돌멩이를 이용하여 땅에 모형을 그려놓고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여 행해지던 놀이	
고망구슬치기	신발뒤꿈치를 돌려 땅에 구멍을 내어 구슬을 굴려 구멍에 넣거나 가까운 구슬을 쏘아 멀리 보내거나 맞추어 따먹기 하는 놀이	구슬치기
고매기잡기	음력 4월8일 밤에 고매기가 많이 잡히는 날이라하여 미끼를 이용하여 고매기라는 작은 고기를 낚아 올리며 놀이로 이어지던 놀이	
고무줄놀이	고무줄을 이용하여 여자어린이들이 노래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던 놀이	

놀이이름	놀이방법	유사놀이
고블락	술래가 “하나둘셋”을 열 가지 세고 난 뒤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으면 ‘팡’ 에 ‘똑딱’ 외치며 숨어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놀이	숨바꼭질
곤각시만들기	소년소녀들이 봄에 보리뿔이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신랑신부를 만들며 즐기던 놀이	
곤충돌리기	곤충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즐기던 놀이	
공치기	작은 공 또는 중간크기의 공을 이용하여 주로 여자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공을 가지고 하던 놀이	
구녁치기	나무 막대로 만든 자를 이용하여 넓은 마당이나 공터에서 자를 쳐서 떨어진 자리만큼 자로 채어보고 누가 멀리 치나 내기하던 놀이	자치기
구쟁기놀이	달팽이 모양을 땅에 그려놓고 술래를 정하여 모양에 따라 돌면서 행해지던 놀이	달팽이 놀이
굴매밟기	주로 여름에 행해지던 놀이로 상대방의 그림자를 밟으러 쫓아다니던 놀이	그림자 밟기
귀잡기	상대의 귀를 잡고서 사설을 노래하면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 귀를 잡았다 놓았다 하는 놀이	
까마귀야	술래를 가운데 정해 놓고 사설을 서로 주고 받으며 행해지던 놀이	여우야 여우야
까막잡기	술래를 정해놓고 놀이를 하면서 술래를 놀려준다. 그래서 놀이가 끝났을 때는 술래가 놀이자를 찾으러 다니고 잡히면 다시 술래가 된다.	술래잡기
꼬집기	“메뚜기”하고 상대의 팔을 꼬집으며 사설의 내용에 따라 이름을 지칭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꼬집거나 때리며 놀이한다.	

놀이이름	놀이방법	유사놀이
끈끈	끈끈 라는 판 모양에 백 말과 흑 말을 두고 이리저리 움직여 상대방의 말을 궁지에 몰아 넣게 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놀이	고누놀이
뽕뽕새기 봉그기	뽕이 알을 낳는 시기에 맞춰서 어른과 아이들이 꿀밭의 돌담 옆이나 수풀이 우거진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뽕 달걀을 주어 놀면서 게임으로 이어지던 놀이	
눈(目)싸움	계절의 구애 없이 아이들끼리 마주앉아 상대방을 똑바로 쏘아보며 누구의 눈의 오래도록 깜박이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나 시합하는 놀이	
눈(雪)싸움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 아동들이 서로 편을 짜고 눈을 몽쳐 던지며 어느 편이 이기는가 겨루기 하는 놀이	
넉동배기놀이	한가해진 겨울이나 정초 때 어느 한집에 모여 나무로 깎아 만든 윷을 작은 접시에 넣어 던지며 윷판에 있는 윷을 돌리는 놀이	윷놀이
도래기치기	주로 남자 아동들이 겨울철 마당에서 팽이를 치며 즐기던 놀이	팽이치기
돈치기	동전을 이용한 놀이로 12~13세 아동들이 정초에 많이 하던 놀이	
돌치기	돌을 가지고 상대방이 세워둔 돌을 마치는 게임놀이	비석치기
뚜렷놀이	겨울철 방 안에서 바지를 몸에 뒤집어쓰고 바보스럽게 행동하여 주변 아이들을 웃기는 놀이로 두루미 놀이라고도 한다.	
뽕돌	큰돌을 둥글게 다듬어서 들어올리게 하는 놀이로 방앗간 앞이나 사람이 잘 모이는 곳에 돌을 놓아두어 힘을 겨루는 오락기구로 사용했었던 놀이	

놀이이름	놀이방법	유사놀이
물탈락	남자아동들이 10명 내외로 한 패가 되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편은 기둥이 되고 이긴 편은 진편인 아동이 등에 올라타는 놀이	말타기
못치기	못을 이용하여 땅에다 영역표시를 한 다음 못을 던져 영역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못을 따먹을 수 있는 놀이	
물싸움 고장놀이	유아들이 들에 나가 오랑캐꽃을 따서 꽃을 서로 맞대어 꺾기 놀이를 하여 누구 꽃이 든 든한가 내기하는 놀이	
물흉내놀이	동네에 여러 아이들이 모여 그중 한 아이의 가슴에 새끼줄을 매어 고삐로 삼고 뛰어 달리게 하는 놀이	
방칠락	사방치기, 방치기 등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돌을 이용하거나 물허벅 깨진 조각을 이용하여 발로 차서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놀이	사방치기
배떨락	짧은 줄을 이용하여 혼자 하는 배떨락과 긴 줄을 돌리며 여럿이서 노래에 맞춰 행해지던 배떨락 놀이가 있다.	줄넘기
빅돌림	말을 타고 달리거나 말 위에서 소리치고 춤추며 하는 놀이	
빠짱치기	지름이 10cm정도 두꺼운 종이를 둥그렇게 오려서 딱지를 만들어 상대방이 딱지를 쳐서 따먹는 놀이	딱지치기
뽕이치기	4월초순경에 들이나 산에서 빠온 뽕이를 이용하여 쌍방이 몇 개씩 내 놓은 뽕이를 가지고 돌리며 밑으로 떨어치워 받을 만들어지게 한 다음, 그 받 속에 뽕이의 한 끝이 닿을 만큼의 뽕이를 상대방으로서는 내놓게 되는 놀이다.	

놀이이름	놀이방법	유사놀이
뽕을땅	땅바닥에 네모 모양을 그리고 한 귀퉁이씩 정한 다음 작은 돌맹이나 바둑알을 말로 하여 손가락으로 튕겨서 상대방의 공을 명중시켜 거기에 들어가면 그때마다 자기의 땅을 넓혀 나가게 되는 놀이	땅재어먹기
소꿉놀이	자연에서 나는 풀이나 허벅 깨진 조각, 흙을 이용하여 여자어린이들이 주로 즐겼던 놀이	
숨비질놀이	물 속에서 누가 오래 호흡을 참으며 잠겨 있을 수 있나를 시합하는 놀이	
씨앗붙임	닭싸움놀이를 말하며 계절에 구애 없이 서로 자기 집에 있는 닭을 가지고 나와 싸움을 붙여 닭의 힘을 자랑하는 놀이	닭싸움
연올리기	연을 이용하여 선달에서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연을 날리며 소원을 빌던 놀이	연날리기
잉어놀이	겨울에 아동들이 두 줄로 손을 붙들고 앞으면 그 위로 한 사람씩 건너가는 놀이	
오니잡기	잡을락 놀이라고도 하며 술래가 숫자를 열까지 세고 도망가는 아동을 잡고 다시 술래로 세우는 놀이	술래잡기
오자미놀이	콩이나 팥을 넣어 만든 주머니를 이용하여 실외에서 단체로 행해지던 놀이로 자기편이 아닌 상대 팀을 오자미로 맞히며 행해지던 놀이	콩주머니 놀이
웃기기	상대방을 웃기는 놀이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사용해서 웃을 수 있도록 하는 놀이	
죽마타기	막대기를 말로 생각하여 두 다리 사이에 끼워서 한 손으로 그 막대기 윗 부분을 잡고 달리는 놀이	

놀이이름	놀이방법	유사놀이
주먹치기	서로가 마주서서 한사람은 주먹을 쥐고 상대방은 양손을 편다. 이때 주먹을 벌린 손속에 손을 넣으면 잡히게 되는 놀이 노래	
줄드래기놀이	꼬리 따기의 일종으로 제일 앞에선 아동이 뒤에 줄을 지어 매달려 있는 아동들을 술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돌며 방어하는 놀이	꼬리따기
쪽기차기	추운 겨울철 마당이나 마을의 방앗간 등지에 주로 남자 아동들이 모여 누가 제기를 많이 차올리는가 내기하던 놀이	제기차기
지게발걸기	가지 뺏은 나뭇가지를 두 개 마련하고 그 가지 둔헌데에 발을 올려 딛고 윗 부분은 손으로 잡아서 목발로 왔다 갔다 하며 경쟁을 벌이는 놀이	
청애조심	한 손으로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잡아 올리고, 그 무릎과 어깨만으로 상대방을 치고 받고 해서 쓰러뜨리면 이기게 되는 놀이	무릎치기
펜싸움	주로 가을철 멀 구슬나무 열매가 익어갈 즈음에 아동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상대방을 향해 나무열매를 손으로 훑어 상대방을 향해 마구 쏘아 대는 놀이	
폭충싸움	대나무로 만든 충에 팽나무 열매를 총알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쏘아대며 총싸움을 벌이는 놀이	
풀놀이	3~4월경에 아동들이 풀 가운데서도 특히 물이 잘 나는 진 풀을 잘라 서로 맞대어 붙이면 어느 한쪽이 물이 강하게 옮겨가는지 경쟁하던 놀이	
행경놀이	겨울철에 주로 행해지는 놀이로 소년소녀들이 4-5명 정도 모여 다리를 서로 마주 끼워 앉아 혼다리인다리 노래부르며 행해지던 놀이	이거래 저거래

Abstract

A Study on Traditional Plays in Jeju

Wol- Sim Lee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amna University

Advisor: Kyeong-Hwa Lee, Ed. D.

This study's aim is to explore traditional plays in Jeju by analyzing its local cultural heritage and the difference between Jeju and those nationwid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 1) What are the traits of those who enjoyed traditional plays in Jeju, including age, sex and group size?
- 2) What are the time-relate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lays in Jeju, such as particular season and specific period of time in a year?
- 3) What ar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lays in Jeju including play environments and prop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57 types of plays are selected, and quantitative analysis is made to calculate their percentage. In addition, content analysis is also implemen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Young children between ages 5 and 7 were less engaged in plays than those later in childhood, because local residents were preoccupied with overcoming tough living environments and weren't able to teach their children how to play.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8 to 13 often imitated adult plays or took pleasure in working with adults. By sex, a lot of local plays were enjoyed by both boys and girls, whereas national traditional plays targeted boys rather than girls. For group size, small-group plays were more prevalent than large-group ones. Thus, play culture in Jeju is a mirror of the equality principle that was widespread in that region.

2) It's difficult to harvest crops in the area. Labor in the sea or mountainous region was looked upon as play. By season, winter plays made up the larger part of national traditional plays, since that was the farmers' leisure season, but in Jeju plays were enjoyed throughout the year without leaning toward any particular season, owing to the warm temperate climate.

3) There is no significant gap in spatial characteristics between local and national traditional plays. As children in Jeju were fond of the sea or mountain as playing spaces, those in the other provinces preferred outdoor spaces, such as fields, streams and mountains. And easily accessible natural things or their variations were utilized as props.